

## 법조윤리시험 및 향후 변호사시험 일정

### 1.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법무부는 2010. 9. 6.(월) 16:00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라 2012년 최초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및 2010. 10. 9.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 관리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였고,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출제 방향 및 기준·채점기준·합격자의 결정·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변호사시험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2010. 10. 9. 실시 예정인 법조윤리시험의 출제기준 및 시험장소, 2012년도 실시 예정인 변호사시험의 시행시기,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해 심의하였다.

### 2. 변호사시험 준비 현황

2007.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되고, 2009. 3.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개원됨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2009. 4. 변호사시험법, 2009. 8. 동법 시행령, 2010. 2.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여 변호사시험 관련 입법을 하였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변호사시험법의 시행에 맞추어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T/F」 구성하여 2009. 5.부터 2009. 7.까지 5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의 기본적인 출제기준 및 지침을 결정하였으며, 2009. 7.부터 2010. 3.까지 각 과목별(공법·민사법·형사법·법조윤리)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구성·운영하여 T/F 위임 사항 및 과목별 구체적 문제유형에 관한 논의를 하고 문제은행 구축을 위한 문제들을 출제하였다.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2009. 12. 29. 변호사시험의 실시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실무계의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가 출제한 문제들로 2010. 1. 18.부터 2010. 1. 22. 까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실시, 그 시험 결과의 분석을 통해 모의시험 문제들을 수정하여 2010. 4. 9. 변호사시험 공법·민사법·형사법·법조윤리 문제유형을 공표하였으며, 2010. 4.부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10. 10. 초 선택과목 문제유형 확정(현재까지 3과목 확정) 공표 예정에 있다.

### 3. 법조윤리시험

제1회 법조윤리시험은 2010. 10. 9.(토) 15:00 서울(단대부고·수도공고) 및 제주(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본 시험이 최초 실시되는 시험인 점과 시험 일정·시험 관리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 당초 안정적 시행을 위해 서울에서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제주 지역 학생들의 응시 불편 등을 이유로 최소한 제주에서만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금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하기로 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첫 시험 시행 후 내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5대 권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법조윤리시험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윤리시험은 Pass/Fail 로 운영되고(합격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 객관식 4지 선다, 40문항 70분 시행되며, 법학전문대학원 정규과정 이수 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분명히 각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하도록 하고, 본 시험이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의 전제가 되는 시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난이도는 필기시험보다는 낮게 설정하되,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험문제를 분석하여 적정 수준 유지하기로 하였다.

### 4. 2012. 최초 변호사시험 시행시기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3년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시험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2009. 5. 변호사시험 기본 T/F에서 최초의 변호사시험을 2012. 4.경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12. 변호사시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를 공지하였으며 2010. 6.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지한 바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도 조기 시험 실시를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나 재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험을 2012. 3. 중순경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심의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자격 취득까지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시험 후 채점위원 및 검사 등 시험 관리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채점기간을 최소화하여 상반기 내에(가능한 한 4월 말경) 합격자 발표를 추진키로 하였다.

#### 5.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하고, 2010. 11.경 공청회를 개최를 통해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내에 결정기로 하였다.

#### 6. 노트북 이용 답안 작성 시행은 보류

법무부는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 1. 실시된 모의시험에서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시행 결과,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 저장 USB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인식이 되지 않는 등 답안 제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답안 제출 방식 개선을 검토 중이나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최초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성, 호환성, 기술 적 유용성, 신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노트북을 이 용한 답안 작성 방식의 도입은 보류하기로 하였다.